

제6강 孔子의 생애와 그의 시대

(1교시)

◆공자세가 강독 1

※ 학습목표: 공자의 생애를 살피고, 그를 매개로 춘추시대 전체를 이해한다.

▲출생지역과 춘추시대의 배경

「공자(孔子)는 노(魯)나라 창평향(昌平鄉) 추읍(陬邑)에서 태어났다. 그의 선조는 송(宋)나라 사람으로 공방숙(孔防叔)이다.」

-이 시대의 중국은 대륙 중앙에 있는 나라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대륙 중앙에 있던 나라들은 약소국들이었다. 강대국은 변방의 진·초·오·제 등이었다. 공자가 주유했던 곳은 주로 대륙 중앙이었으며, 노나라는 제나라와 연관이 많다.

-그의 선조는 송나라 사람이다. 송나라는 은나라의 유민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그래서 천시당하던 곳이었으며, 송나라 사람들은 대개 바보처럼 묘사된다.

참고자료



춘추전국시대 역사지도

▲출생과 어머니

「방숙은 백하(伯夏)를 낳았고 백하는 숙양홀(叔梁紇)을 낳았다. 홀은 안씨(顔氏)와 야합(野合)하여 공자를 낳았는데, 이구(尼丘)에서 기도를 한 뒤, 공자를 얻게 되었다.」

-시라카와 시즈카(일본의 학자)에 따르면, 안씨는 무녀였다. 숙양홀과 안씨는 나이차가 많이 났는데 이것이 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니라, 안씨의 신분이 미천했기에 무제가 되어 야합하게 됐다.

▲출생시기와 어린시절 외모

「노 양공(魯襄公) 22년에 공자가 태어났다. 그가 태어났을 때 머리 중간이 움푹 패어 있었기 때문에 구(丘)라고 이름하였다. 자는 중니(仲尼)이고 성은 공씨(孔氏)이다.」

-출생이 기원전 551년 혹은 552년이라는 설이 있다.

-이구에서 기도를 한 후 낳았고, 둘째 아들이기 때문에 공자의 자가 중니이다.

▲아버지의 묘소

「구가 태어난 후 숙양홀이 세상을 떠나 방산(防山)에서 장사를 지냈다. 방산은 노나라의 동부에

있어서 공자는 아버지의 묘소가 어디에 있는지 몰라 의심하였지만 어머니는 그것을 숨기었다. 공자는 어려서 소꿉장난을 할 때, 늘 제기(祭器)를 펼쳐놓고 예를 올렸다. 공자는 어머니가 죽자 곧 오보지구(五父之衢)에 빈소를 차렸는데, 이는 대개 (부모를 함께 매장하는 풍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중을 기하기 위함이었다. 추읍 사람 만보(萬父)의 어머니가 공자 아버지의 묘소를 알려 주어 그 후에야 비로소 방산에 합장하였다.」

-그의 어머니가 아버지의 묘소 위치를 공자에게 숨기었던 이유는 안씨가 야합을 했고, 이에 공자 아버지의 집안이 안씨를 인정하지 않은 데 있다. 집안에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씨는 숙양홀의 장사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며, 따라서 안씨는 숙양홀의 묘가 어디 있는지 몰랐다.

▲집안에서 천대 받는 공자

「공자가 아직 상복을 입고 있을 때, 계씨(季氏)가 명사(名士)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다. 공자도 참석하러 갔다. 양호(陽虎)가 가로막고 말하였다. "계씨는 명사들에게 연회를 베풀려고 한 것이지만 당신에게 베풀려는 것은 아니오." 이에 공자는 물러나고 말았다.」

-양호는 공자와 악연이 깊다. 어릴 때 공자를 천대하였으며, 양호가 세력을 잡았을 때 공자는 그의 부름에 거부한다. 또한 광이란 땅에서 공자는 양호라는 오해를 받아 수난을 겪는다.

▲맹희자와 성인의 자식

「공자 나이 17세 때의 일이다. 대부 맹희자(孟釐子)가 병이 나서 곧 죽게 되었을 때, 그는 후계자인 의자(懿子)에게 훈계하며 말하였다. "공구(孔丘)는 성인의 후손인데, 그 조상은 송나라에 있을 때 멸망당하였다. 그 조상 불보하(弗父何)는 원래 송나라의 후계자였으나, 아우 여공(厲公)에게 양보하였다. 정고보(正考父)에 이르러 대공(戴公), 무공(武公), 선공(宣公)을 섬길 때, 세 번 명을 받았는데, 매번 명을 받을 때마다 더욱 공손하였다고 한다. 그래서 정(鼎)에 새겨놓은 명문(銘文)에 이르기를 '첫 번째 명에 몸을 숙이고, 두 번째 명에 허리를 굽혀 절하고, 세 번째 명에는 큰 절을 한 뒤 받았다. 길을 걸을 때는 중앙을 걸지 않고 담장가를 따라 다녀서 누구도 감히 나를 경멸하지 않았다. 이 술에 풀과 죽을 섞어서 청렴하게 살아왔다'라고 하였다. 그 공손함이 이와 같았다. 내가 듣기로 성인의 후손은 비록 국왕의 지위에 오르지는 못해도 반드시 재덕(才德)에 통달한 자가 있다. 지금 공구는 나이는 어리나 예를 좋아하니 그가 바로 통달한 자가 아니겠느냐? 내가 죽거든 너는 반드시 그를 스승으로 모시거라."」

-이 문장에서 성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의미의 성인이 아니다. 오늘날 성인의 의미는 나중에 공자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이 문장에서의 성인은 말을 듣는다는 뜻이 강하다. 이는 무巫와 통한다. 그래서 보통사람이 모르는 것을 아는 사람, 무기질이 있는 사람을 뜻한다.

-이 문장에서 예도 제사의 제례를 뜻한다. 무계층이 제사를 담당하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맹희자는 의자에게 제례를 위해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라고 했던 것이다. 제사라는 것은 죽음과 관계한다. 그래서 무는 현세보다 내세에 관련이 깊다.